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가정 윤리

본문은 가정 윤리, 즉 가족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교훈한다.

[골 3: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에베소서 5:22-23,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에 근거한 것이다(창 2:18; 딤후 2:11-13).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신 다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돕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는 남편을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 창조의 본래의 질서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남녀평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풍조에 근거하여 성경의 교훈을 부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성경의 교훈은 옛 시대에 제한되지 않는다. 사도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살후 2:15).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을 누리는 일들에는 남녀나 사회 신분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지만, 가정과 교회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위치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서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베푸셨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은 오

래 참고 온유하다(고전 13:4).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의 아내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거칠게 대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아내는 남편의 몸의 귀한 한 부분인 갈빗대로 만들어진 자이다. 그는 남편이 사랑의 품으로 품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자기의 행복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가져오는 지혜로운 일이다.

성경의 교훈은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 즉 여성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고 학대하는 사상과는 다르다. 남존여비 사상은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섬기라는 사상이지만, 성경의 교훈은 쌍방적이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교훈하지만, 또한 동시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실제로 아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남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며 산다. 아내 사랑은 아내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고 그것은 곧 남편을 위한 봉사와 수고로 이어진다. 부부가 싸우면 사랑이 식어지고 행복도 사라지지만, 서로 사랑하면 가정은 피곤한 세상 생활에서 안식처가 될 것이다. 부부 사랑은 결국 가정의 행복이 된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셋째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모든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 즉 죄 되는 일 외의 모든 일을 가리킨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영어성경들의 번역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주 예수

께서는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셨다(눅 2:51). 믿음의 여인 에스더는 부모처럼 자기를 길러준 친척인 모르드개에게 항상 순종하였고 왕후가 된 후에도 그러하였다.

부모를 멸시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치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악이다. 신명기 21:18-21은,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그 부모가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그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교훈하였다. 신명기 27:16,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21절]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할아라.

가정 윤리에 있어서, 넷째로, 부모는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야’라는 말쑤는 자녀 교육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음을 보인다. 물론 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녀를 격노케 말라’는 것은 교훈과 교육을 전제한 것이다. 무관심하면 격노케 할 것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하려고 할 때 그를 격노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격노케 한다는 것은 성질을 나게 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보통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서 일어난다. 부모의 정당한 명령과 처분에 화를 내는 것은 불순종이지만,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부당한 명령을 해서 안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리하게 또는 감정적으로 대하면 자녀의 마음이 상하게 되며 그것은 자녀 교육에 유익보다 해가 된다.

자녀는 마음이 상하면 마음 문을 닫고 낙심하고 의욕을 잃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포자기하거나 반항적이게 되기 쉽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교훈과 교육은 유익보다 해가 된다. 자녀 교육은 성경의 교훈 안에서 사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를 격노케 하거나 낙심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또 필요하다면 체벌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잠언 13: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나 그때에도 무엇이 잘못이며 왜 잘못인지 충분히 이해시킨 뒤 매를 들어야 하고 감정적으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 ‘자녀를 격노케 말

라’는 교훈은 체벌도 미운 감정으로가 아니고 사랑의 심정으로 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을 돕는 자로 만드셨고 남편을 그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아내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야 한다. 그는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희생적인 온전한 사랑이다. 남편은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일 뿐 아니라, 아내나 남편 자신에게도 행복이 된다.

셋째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정신이며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약속된 의무이다.

넷째로, 부모는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바른 교훈으로 교훈하고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책망하고 체벌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때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추수

[계 14: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급 이후로[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저희는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며 저희의 행한 일이 저희와 함께 따르리라(전통사본) 하시니라.

‘이제부터’라는 말은 ‘복음 신앙을 가진 때로부터’라는 뜻이다. 복음 신앙은 곧 구원이 되며 복음을 믿고 죽는 자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므로 복되다는 뜻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죽음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은 대환난 시대에 순교자들이 많을 것을 암시한다(계 6:11).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영적 연합 속에서’ 죽는다는 뜻이다. 사람이 주 밖에서, 복음 신앙 없이 죽는다는 것은 큰 불행이다. 왜냐하면 모든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죄의 값인 죽음 곧 단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눅 16:19-31).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다. 본문은 그 이유

를 두 가지로 말한다. 첫째는 그가 그 수고를 그치고 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수고와 고생이 많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했다(시 90:10).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1:28).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안식이 있다. 히브리서 4:3, 10-11,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그 안식의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평안이 넘친 안식의 세계이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한 선행들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행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도 없는 누추하고 얼룩지고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귀히 보시고 상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6:27, “인자(人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고린도후서 5:8-10,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4-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利)헨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4-20절은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인다. 흰 구름 위에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인자(人子) 같은 이는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곡식을

베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의 때 곧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심판의 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때이다. 가을에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들이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였다. 마태복음 3:11-12,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요 참된 기쁨의 이유이다.

[17-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利)헨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利)헨날카로운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利)헨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갈레까지 달았고 1천 6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날카로운 낫으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들을 포도송이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마지막 큰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가 말갈레 즉 말의 목까지 튀는 것은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질 것을 암시한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세계 대전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 피는 1,600스타디온에 퍼질 것이다. 1스타디온은 약 184.2미터이므로 1,600스타디온은 약 294.7킬로미터, 즉 약 300킬로미터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남북의 길이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 많은 피가 흘려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인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심히 두려운 일이다. 그들이 경험할 전쟁은 매우 참혹할 것이다. 유브라테 강 주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마지막 세계 대전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계 9:15).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는 심히 두려울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됨을 알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신앙, 속죄 신앙을 가지고 죽는 것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이 있고 그 선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추수한 곡식이 곳간에 저장되듯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성도에게는 복되고 영광스런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와 선을 행하며 오히려 담대히 죽음을 사모해야 한다. 히브리서 11:35-38,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대세상이 가치가 있지 않도대.)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2: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고린도후서 5: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치 않고 섬기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온 세상에 만연한 불경건과 우상숭배, 미움과 음란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이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동반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심판과 회복

[속 14:12]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이 거주하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신다(창 12:3; 시 129:5). 그는 예루살렘 성을 치는 자들에게 썩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는 그들의 대적하는 몸과 손발을 썩게 하시고 그들의 교만한 눈을 썩게 하시고 그들의 비방하는 혀를 썩게 하실 것이다.

[13-15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을 친 이방인들 가운데 큰 요란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서로간에 분쟁하고 치고 죽이는 요란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치는 대적자들이 타고 온 짐승들, 즉 말들과 노새들과 약대들과 나귀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송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또 남은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표현된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간 했던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그것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었다. 또 그것은 인생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끝마치고 천국에 들어감을 상징한다.

[17-21절]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 . .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치는 자들에게 큰 요란을 내리실 것이며 자기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보상을 주실 것이다. 오늘날도 신약교회에는 대적자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들을 벌하실 것이며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만 바라고 또 평안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안 주시기만을 기도하며 체험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구원과 보호를 감사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현세와 내세의 생명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비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 용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